

임진왜란기 사대부의 소통력

오희문의 『쇄미록』을 통한 탐구

Communicative Ability of the Literati during the Imjin War: An Inquiry through Oh Hee-mun's Wartime Diary, *Swaemirok*

변원섭*

국문요약 임진왜란은 조선 사회 전반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정보와 소통의 단절은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인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대부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사회적·가족적 소통을 시도하여 생존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오희문의 『쇄미록』을 저본으로 임진왜란 시기 사대부의 소통 노력을 분석하고 '소통력'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한 것이다.

오희문이 거주한 지역을 기준으로 장수·홍주·임천·평강 시기로 구분하여 사회적 소통(조보·관문 등)과 가족적 소통(편지)을 각각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官)과의 접촉면을 갖고 있었던 장수, 평강 시기에는 관의 문서 체계가 핵심 소통 경로로 작동했으며, 전황이 안정적일 때는 편지로 가족 간의 소통에 의존하는 양상이 강화되었다. 특히, 평강 시기에는 장남의 근무지 인근에서 거주함에 따라 관을 통한 정보 입수와 가족 간의 소통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변화는 사대부가 상황에 따라 소통 전략을 유연하게 조정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임진왜란 연구에서 소통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시도으로써, 전란 속 개인 기록을 통해 사회적·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획득과 편지 수발신을 통한 가족 간 유대의 실제 작동을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사대부 일기와의 비교를 통해 오희문이 지니고 있던 '소통력'이 개인적 특징의 발현인지 사대부 일반의 특징이었는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소통력, 사대부, 임진왜란, 정보망, 사회적 소통, 가족적 소통

- 차례**
1. 서론
 2. 장수 시기(1592.4.13~1592.10.7: 6개월):
생존을 위한 정보 획득 노력
 3. 홍주 시기(1592.10.13~1593.6.16: 8개월):
불안정한 정보망 속 생존 모색
 4. 임천 시기(1593.6.19~1596.12.19: 3년 6개월):
가족 중심의 소통
 5. 평강 시기(1597.2.13~1598.12.30: 1년 10개월):
안정된 생활 속 적극 소통
 6. 결론

1. 서론

현대에는 필요한 때에 적절한 수단으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삶을 영위하는 데 별다른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SNS 등을 통한 소통 과잉이 사회 문제화되기도 한다. 스마트폰이라는 문명의 이기가 있기 이전 400여 년 전의 조선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 및 가족과 소통하였을까 하는 의문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물론, 관(官) 차원에서는 조보(朝報)¹, 관문(關文)², 전통(傳通) 등의 공문 전달 체계로 소통했고, 민(民) 차원에서 방문, 편지 등을 통해 소통하였을 것이다. 그렇지

만 글을 쓸 줄 몰라 기록을 남기지 못한 백성 간의 소통 문제뿐 아니라 글을 쓰고 읽을 수 있어 여러 형태의 자료를 남긴 사대부³들이 어떻게 소통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이규철이 『임진 일록』을 분석하여 사대부 계층의 인적 네트워크가 전쟁 정보를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하면서, 전쟁 관련 정보가 공식 보고 체계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던 시점과 백성들이 같은 내용을 인지했던 시점 등을 비교해 보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제안⁴하고 있는데 본 논문은 그 후속 연구의 성격도 가진다. 필자는 임진왜란(1592.4.13~1598.11.19)⁵ 시기에 정보와 소통의 단절로 개인과 가족의 생존을 위협받았을 사대부가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외부와 소통하며 생존을 모색하였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필자는 ‘소통력(疏通力)’이라고 개념화하였는데 이는 ‘사회 또는 가족과의 연결을 시도하여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가족의 안위를 확인함으로써 생존을 모색하고자 하는 주체적인 소통 노력의 일체’를 지칭하는 것이며, 필자가 자의적 정의한 것이다. 이를 규명하기 위해 오희문의 전란 일기 『쇄미

록』을 저본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는 임진왜란 시기 일상의 생활 내용뿐 아니라 편지의 수발신 내용과 그가 들은 정보 내용 등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분석에 적절한 자료이다. 그러나, 오희문의 소통 노력⁶은 유별난 것이기도 해서 이를 사대부 전체의 소통력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사대부들의 일기와 비교·분석이 추가로 필요한 이유이다.

『쇄미록』(보물 제1096호)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해인 1591년(선조 24) 11월부터 시작하여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인 1601년(선조 34) 2월까지 9년 3개월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 오희문은 1539년(중종 34)에 출생하여 1613년(광해군 5)에 75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아버지 오경민은 장성 현감을 지냈으며 어머니는 고성 남씨다. 오희문은 오경민의 장남으로 연안 이씨와 결혼하여 윤겸·윤해·윤함·윤성의 4남과 신응구·김덕민과 결혼한 두 명의 딸과 15세 때 병으로 죽은 딸을 포함하여 4남 3녀를 두었다. 장남인 오윤겸(1559~1636)은 선조와 광해군 그리고 인조에 이르기까지 삼조에 걸쳐 평강 현감을 시작으로 안주·동래부사, 강원도 관찰사, 광주 목사 등을 지냈고 이조·형조·예조판서를 두루 거쳐 말년에는 우의정과 영의정을 지냈다. 오희문은 1591년 11월 노비들의 신공(身貢)을 거두고 지방 친척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 치남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전라도 장수(長水)에 1592년 4월 13일 도착하였는데 그곳에서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듣는다. 장수에서 6개월간 피난 생활하게 되며 이후 홍주(洪州, 지금의 홍성)에서 약 8개월을 거주하다가 1593년 6월 부여군의 임천(林川)으로 이사하여 1596년 12월까지 3년 6개월여 거주한다. 그 이후 정유재란 시기인 1597년과 1598년에는 장남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강원도 평강에서 거주한다. 이후 평강을 떠

1 『표준국어대사전』, 조선시대에 승정원에서 재결 사항을 기록하고 서사(書寫)하여 반포하던 관보. 조칙, 장주(章奏), 조정의 결정 사항, 관리 임면, 지방관의 장계를 비롯하여 사회의 돌발 사건까지 실었다. 이후의 단어에 대한 설명 자료는 국립국어원(<https://stdict.korean.go.kr>)의 표준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다. 조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김경수,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회』 43,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김영주, 「조선시대 조보 연구(차배근, 2022)에 대한 서평: 필사 조보 창·폐간 시기, 조보 명칭과 출현 건수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3),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24를 참조할 것.

2 조선시대에 동등한 관서 상호 간이나 상급 관서에서 하급 관서로 보내는 문서.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4841>(접속일: 2026.6.23)

3 사대부는 5품 이하 관원의 명칭인 사(士)와 4품 이상 관원의 호칭인 대부(大夫)가 결합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양반으로 불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정재훈, 「사대부가 주도하는 사회로서의 조선 시대사」, 『역사비평』 135, 역사비평사, 2021을 참조할 것.

4 이규철, 「임진전쟁 시기 민간의 정보수집과 전달 양상」, 『국학연구』 53, 한국학진흥원, 2024.

5 독자들의 편의를 위해 간지를 쓰지 않고 서기 연도로 바꾸어 표시한다. 이후의 표기에서도 같다.

6 1598년 5월 6일 일기에 “한 번 헤어진 뒤에는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반드시 만난 뒤에야 서로 길하고 흉한 일에 대해 알게 된다. 이것이 시절 탓인가, 운명 탓인가. 슬프기 그지없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의 소통 노력은 시절과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였다.

나 1601년 2월 서울에 도착하여 피난 생활을 마친다. 이처럼 오희문은 임진왜란 기간 거주지를 장수(1592.4.13~1592.10.7: 6개월)와 홍주(1592.10.13~1593.6.16: 8개월), 임천(1593.6.19~1596.12.19: 3년 6개월), 평강(1597.2.13~1601.2.21: 4년) 등으로 여러 번 바꾸었는데 상대적으로 전쟁의 피해가 적었던 충청도, 전라도, 강원도에서 주로 거주하였다.⁷

『쇄미록』에 대해서는 음식문화,⁸ 가장의 역할,⁹ 의약 생활의 변화,¹⁰ 화폐유통 실태,¹¹ 전쟁 체험과 피난 생활,¹² 사대부의 일상생활,¹³ 정보의 전달 양상¹⁴ 등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희문이 전쟁 중에 생존을 위해 전황과 조정의 변화 등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가족의 근황을 알기 위해 편지를 수발신하거나 직접 탐문을 하는 등의 노력으로 자신 뿐 아니라 가족들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던 ‘소통력’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오희문이 거주하던 지역에 맞춰 장수, 홍주, 임천, 평강 시기로 구분하여 임진왜란 시기인 1598년 12월까지만 분석한다. 거주지를 옮김으로써 해당 지역에서의 인적 네트워크의 유무

와 편지 수발신의 용이성, 전쟁의 직간접 영향 등에 따라 ‘소통력’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회와의 소통 노력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기록에서 날짜를 특정할 수 있거나 일기 기록에서 확실히 날짜를 언급하고 있는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가족 또는 주변인들과의 소통은 주고받은 편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논문은 황교은, 채현경, 전형윤, 이주형, 유영봉, 장성덕, 강지혜, 김유빈, 안성은 등이 옮기고 (주)사회평론 아카데미에서 2018년 발간한 『쇄미록』을 저본으로 하였다.

2. 장수 시기(1592.4.13~1592.10.7)

: 생존을 위한 정보 획득 노력

이 시기는 일본의 침략으로 조선의 방어선이 무너지고 한양을 빼앗긴 시기이다. 1592년 4월 13일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하였으며, 탄금대 전투 패배(1592.4.28), 선조의 파천(1592.4.20), 한양 함락(1592.4.22)이 있었고, 이후 명군이 합세하여 조·명 연합군의 평양성 탈환(1593.1.9)과 권율 장군의 행주대첩(1593.2.12)이 일어난 시기이면서 이순신 장군이 옥포(1592.5.7), 사천(1592.5.29), 한산도 대첩(1592.7.8)으로 남해 제해권을 장악한 시기이기도 하며, 전국적으로 광재우, 조헌 등의 의병이 봉기한 때이기도 하다.

오희문은 1591년 11월 한양에서 출발하여 여행 중에 처남이 현감으로 근무하던 장수에서 전쟁 발발 소식을 듣는다. 이때는 가족들이 모두 한양에 있었다. 일본군이 가까이 오자 1592년(선조 25) 6월 26일 석천암이라는 절로 피신하였다가, 7월 2일 다시 석천암에서 20여 리가량 더 깊은 산속으로 피신하여 생활하다가, 9월 22일이 되어서야 86일 만에 관아로 돌아온다. 이때는 비록 산속에서 피난의 고된 기간을 보내기는 했지만, 관의 보호 아

7 변원섭, 「임진왜란 시기 일기 자료에 나타난 사대부의 전쟁 체험과 평화 인식」,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22, 19~21쪽.

8 김미혜, 「조선 중기 두류 수집 현황과 공 음식문화 고찰: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3),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19; 김미혜, 「쇄미록에 기록된 16세기 사대부가 절사와 세시음식 연구」,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5(1), 한국식생활문화학회, 2020; 차경희, 「쇄미록을 통해 본 16세기 동물성 식품의 소비 현황」,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23(5), 한국식품조리과학회, 2007.

9 김성희, 「쇄미록에 나타난 16세기 가장의 역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4), 한국가정관리학회, 2000; 박미혜, 「조선중기 수령의 가족부양으로 본 長子의 역할과 家의 범위」, 『사회와역사』 75, 한국사회사학회, 2007.

10 신동원, 「조선 후기 의약 생활의 변화: 미암일기, 쇄미록, 이재난고, 흙영의 분석」, 『역사비평』 75, 역사비평사, 2006.

11 이정수, 「16세기 중반~18세기 초의 화폐유통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

12 방기철, 「임진왜란기 오희문의 전쟁체험과 일본 인식」, 『아시아문화연구』 24,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신병주, 「16세기 일기 자료 쇄미록 연구: 저자 오희문의 피난기 생활을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60, 조선시대사학회, 2012.

13 전경목, 「일기에 나타나는 조선시대 사대부의 일상생활: 오희문의 쇄미록을 중심으로」, 『한국학』 19(4), 한국학중앙연구원, 1996.

14 김경태, 「쇄미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관련 정보의 전달 양상」, 『역사와 담론』 99, 호서사학회, 2021.

래 있었으므로 관의 공식 문서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 비교적 원활하게 전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표 1〉 장수 거주 시기의 소통 내역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임진왜란 발발 (1592.4.13)	1592.4.16	장수	소문	3일	
선조의 교서 (1592.4.25 작성)	1592.5.11	장수	득문	16일	사인 (舍人) ¹⁵
영동 사람의 통문 (1592.5.13 작성)	1592.5.16	장수	미상	3일	
세자 책봉 조서 (1592.5.9 작성)	1592.6.9	장수	득문	30일	용담 현령
안음 사람의 통문 (1592.6.18 작성)	1592.6.19	장수	미상	1일	
권율의 격문 (1592.6.26 작성)	1592.6.29	석천암	미상	3일	
선조 용천 이동 사실 (1592.6.20) ¹⁶	1592.7.23	석천암	득문	33일	처남의 편지
동궁 이천 이동 사실 (1592.7.9) ¹⁷	1592.8.5	석천암	득문	26일	처남의 편지
송제민의 통문 (1592.7.21 작성)	1592.8.10	석천암	미상	19일	
이광의 백의종군 사실 (1592.7.22) ¹⁸	1592.8.13	석천암	득문	21일	장수현 아전
선조의 유서 (1592.8.5 작성)	1592.8.13	석천암	득문	8일	장수현 아전
왕세자의 글 (1592.7.21 작성)	1592.8.16	석천암	득문	25일	지인 백여룡
임취정의 사판삭제 (1592.6.29) ¹⁹	1592.8.21	장수	득문	58일	지인 박대복

15 조선시대 정4품의 관직.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25895>(접속일: 2026.6.2).

16 『선조실록』, 1592.6.11. “상이 평양을 떠나 영변으로 향하였다(上發平壤 向寧邊).”; 『선조실록』, 1592.6.20. “이른 아침에 상이 용천군에 도착하였다(早朝 上次龍川郡).”; 이후의 조선왕조실록 인용은 한국고전종합DB(<https://sillok.history.go.kr/>)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17 『선조실록』, 1592.7.9. “왕세자는 이천(伊川)에 있었다(王世子在伊川).”

18 『선조실록』, 1592.7.22. “비변사가 아뢰기를, 전 감사 이광은 낭관의 관직에서 5~6년이 되지 않아 정경의 반열에 뛰어올랐는데도 털끝만큼도 은혜에 보답하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뒷전으로 물러나는 것만을 상책으로 삼습니다. …(중략)… 이를 치하지 않으면 국가의 형정이 크게 무너져서 끝내 유지할 방도가 없게 될 것입니다. 백의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備邊司啓曰 前監司李洮職自郎僚 不五六年 超擢正卿之列 不思豪髮圖報 惟以退托爲得策…(中略)…此而不治 國家刑政大壞 終無以維持 請令白衣從軍 上從之).”

19 『선조실록』, 1592.6.29. “주서 임취정·박정현, 검열 조준세·김선여 등이 안주에서부터 서로 이끌고 도망하였으니, 일을 기록하는 직위가 폐지되고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어가 이동 예정 사실 (1592.8.4) ²⁰	1592.8.26	장수	득문	22일	관문(關文)
명군 평양 패전 소식 (1592.7.25)	1592.8.29	장수	득문	29일	순찰사의 글
왕의 교서 (1592.7.22 작성)	1592.9.3	장수	득문	41일	고산훈도 ²¹
왕세자 글 (1592.8.8 작성)	1592.9.3	장수	득문	25일	고산훈도

주: 1. 여기서 표기되는 날짜는 당시 통용되던 음력이다. 이후에도 같다.

주: 2. 득문(得聞)은 출처가 있는 경우, 소문은 출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후에도 같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박한 전쟁 발발 소식과 전쟁 발발 이후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영동 사람의 통문은 3일 만에 입수하였고, 석천암에 피난한 시기에도 권율의 격문을 3일 만에 입수할 수 있었다. 특히, 경상도 안음 사람이 보낸 통문은 불과 하루 만에 입수하여 읽어볼 수 있었는데 이는 전쟁 초기에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민간 차원의 통문들이 급박하게 전달되고 유통되었음도 보여준다. 또한, 한양에서 내린 선조의 교서(1592.4.25)는 16일 만에, 평양에서 선조가 내린 세자 책봉 조서(1592.5.9)는 30일 만에 읽어볼 수 있었다. 특히, 선조가 평양에서 용천으로 이동(1592.6.20)한 사실과 동궁이 이천으로 이동한 사실(1592.7.9)도 처남이 편지로 전해 주어 알 수 있었다.

석천암에서 피난하고 있다가 잠시 장수 관아로 내려왔던 시기에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

시행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고에 없던 일이니, 모두 사판에서 삭제하도록 명하소서(注書 任就正 朴鼎賢 檢閱 趙存世 金善餘 自安州相率以逃 致令記事之職闕 而不舉 此前古所無之事 其遺君父棄官事之罪 不可不重治 請並命削去仕版).”

20 『선조실록』, 1592.8.4. “상이 전고하였다. 일기가 점점 추워지는데 어떻게 오랫동안 한쪽 변방에 머물 수 있겠는가. 또 명군이 나온다고 하니 정주에 이주할 일을 비변사에 이르라(上敕曰 日氣漸寒 豈可久駐一隅 且有天兵 定州移駐事 言于備邊司).”

21 훈도(訓導)는 한양의 4학(學)과 지방의 향교에서 교육을 담당한 교관.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5790>(접속일: 2026.6.2); 고산(高山)은 조선시대 함경도 안변의 고산역을 중심으로 한 역도(驛道).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3652>(접속일: 2026.6.2); 이로 보아 ‘고산훈도’는 조정의 문서를 전파하기 위해 온 고산지역 향교의 교관으로 보인다.

원해 전황을 속속들이 파악하려 한다. 가족과 떨어져 모친을 포함한 가족의 생사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한탄과 염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던 오희문의 정보 획득 노력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들려오는 소문에 대해서 “왜적이 도성에 들어온 뒤로 길이 끊겨 소식이 오랫동안 두절되었다. 한 집안의 소식만 두절된 게 아니라 조정의 움직임도 알 수 없다. 이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한두 명 있기는 하지만 모두 근거 없는 소문이라 믿을 수 없다.”(1592.7.4)라고 하면서도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당초 듣기로는 적이 진안으로 들어갔고 또 이 현의 경계에 있는 호천을 침범했다고 했는데, 지금 다시 들으니 모두 헛소문이라고 한다.”(1592.7.6)라고 허탈해하면서 어떤 소문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한다. 정확한 정보가 절실하였지만, 제한된 정보망 속에서 소문조차도 흘러들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석천암으로 들어간 이후 산속에 있으면서도 권율의 격문, 송제민의 통문, 왕세자의 글 등을 입수하여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고, 전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제목(除目),²² 정목(政目)²³을 확인하면서 관리의 제수, 해임 등 정치의 변동 상황까지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다.

오희문이 장수현과 석천암 등에서 입수한 정보들이 조선왕조실록의 기록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조보 등 관의 정보 전달 체계를 통해 전시 초기에는 전황이 잘 전파되고 있었고, 제목, 정목 등도 산속 피난처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아 조정의 관리 임면 체계도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체계 덕분에 장수 현감인 처남의 보호 아래 피난 생활하고 있었던 오희문은 정확하게 전시 상황을 인지하고 정국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명군의 평양성 패배 사실(1592.7.25)을 임금조차도 9일 이후에나 보고받아 알게 되었을 정도²⁴로 정보 전파 속도가 빠르지 않은 상황이었음을 고려할 때 선조(33일)와 동궁(26일)의 이동 내용을 한 달여의 시차를 두고 산속 피난처에서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빠른 정보 입수였다.

전쟁 발발 전인 1592년 4월 20일에 어머니와 아내가 작성한 편지²⁵도 장수현의 경저노(京邸奴)²⁶를 통해 전쟁 발발 후인 4월 30일에 이상 없이 받아보았다. 사적인 편지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상 없이 전파된 것으로 보아 전쟁 초기에는 국가 체계가 비교적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 홍주 시기(1592.10.13~1593.6.18)

: 불안정한 정보망 속 생존 모색

이 시기는 1차 진주성 전투(1592.10), 평양성 탈환(1593.1), 벽제관 전투(1593.1), 행주대첩(1593.2), 2차 진주성 전투(1593.6) 등이 일어난 기간이며 조명연합군이 반격을 시작해 한양을 수복하고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퇴각하여 공방전을 벌인 시기이다.

이 시기에 오희문은 한양에서 피난 온 처자식(1592.10.13)과 어머니(1592.12.16)와 재회하여 홍주에서 함

²⁴ 『선조실록』, 1592.8.4. “밤 이경에 급보가 평양으로부터 왔다(夜二更有急報自平壤來).”라는 기록으로 보아 1592.7.25. 평양성 패배 사실이 선조에게 9일 만에야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²⁵ 여성의 편지가 어떤 문자로 작성되었는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렇지만, 조선시대 여성들도 한글을 사용하여 편지를 주고받고 심지어 관에 내는 소장인 소지(所志)까지도 한글로 작성한 사례가 있다는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들의 편지는 주로 한글로 작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서는 백두현, 「조선시대 여성의 문자 생활 연구: 한글 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2, 한국문화언어학회, 2005; 박준호, 「조선 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 글쓰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참조

²⁶ 경저(京邸)는 지방 고을에서 서울에 설치한 연락 사무소이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02775>(접속일: 2026.6.2); 경저노는 경저에서 부리던 종이다.

²² 『표준국어대사전』, 임금이 제수한 관리들의 명단을 적은 목록; 1592.8.7. 일기에 “이산보가 이조판서, 이항복이 병조판서, 이성종이 호조판서, 이덕형이 대사헌에 제수”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²³ 『표준국어대사전』, 벼슬아치의 임명과 해임을 적어 놓은 문서; 1592.8.8. 일기에 “정목에 정종명은 문과 1등 1인으로 천적에 제수되었고...(하략)...”라고 기록하고 있다.

께 거주하게 되지만, 오히려 자신이 전염병에 걸려 어머니 남씨가 1593년 2월 17일에 여동생이 거주하는 영암으로 피신함으로써 다시 헤어진다. 이 시기에 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갔지만, 주요 정보 출처였던 처남의 근무지 장수현과는 떨어진 홍주에서 거주²⁷하였던 관계로 주변의 정보를 들을 수단이 사라져 주로 소문과 전언에 의지하여 전황을 파악한다.

〈표 2〉 홍주 거주 시기의 소문 내력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임해군, 순화군이 포로되어 안변에 있는 사실 (1592.10.2) ²⁸	1592.10.15	홍주	득문	13일	정산 현감
1차 진주성 전투 승리 소식 (1592.10.10)	1592.10.21	홍주	소문	11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해군과 순화군이 포로가 되었다는 사실도 공식 문서가 아닌 정산 현감이 하는 말을 옆에서 얻어들었을 뿐이고, 1차 진주성 전투에서의 승리 소식도 소문을 들어 11일 만에 겨우 알게 된다.

임해군과 순화군 및 재상 황정욱 부자와 김귀영 또한 모두 포로가 되었는데, 적이 임해군과 순화군을 수레에 태워 지금 안변에 이르렀다고 한다.(임진남행일록, 10.15.자)

진주성을 포위했던 왜적이 아군에 패하고 거의 다 사살

되어 2천 6백여 명의 수급을 베었고 도망친 자는 몇 안 된다고 한다.(임진남행일록, 10.21.자)

이러한 답답한 상황은 장수 현감이었던 처남의 사망 (1592.11.23) 이후 심화해 여기저기서 소문을 듣는 데만 족해야 했다.

자정에게 들으니, 호남 순찰사가 체찰사와 불화해서 일을 많이 방해하며 그의 명을 따르지 않고, 또 조정에서 지시를 내렸는데도 통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계사일록, 1.3.자)

소문에만 의지하여 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를 느꼈기 때문인지 직접 아들 윤해를 한양에 보내 상황을 파악하기도 한다.

선릉에서부터 불이나 우리 산으로 옮겨붙었는데 다행히 봉분까지는 타지 않았단다. …(중략)… 곳곳의 길거리와 집집마다 문과 마당에 시체가 쌓여 있어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중략)… 강릉, 태릉, 현릉도 모두 파냈으나 현궁까지는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중략)… 봉선사는 다 타서 없어지고 중들은 모두 흩어져 단지 대여섯 명이 임시로 집을 마련하여 살고 있더라(계사일록, 5.8.자).

아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한양의 피해 상황과 조상묘에 대한 피해 여부에 관심을 두고 그날의 일기를 상당히 상세하게 긴 분량으로 적는다. 정보의 부족 상황을 타개하려 노력한 흔적이다. 가족 간에는 편지를 가끔이나마 주고받아 생사 무탈 여부를 확인한다.

²⁷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를 사용하여 자동차로 이동 조건을 입력하였을 때 장수와 홍주(현재의 홍성) 사이는 188Km 떨어져 있다. 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을 당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거리는 더 늘어날 것이다.

²⁸ 『선조실록』, 1592.9.4. “상이 최흥원에게 하문하기를, 왕자가 사로잡혔다는 말이 제일 먼저 성천에 떠돈다고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上下問崔興源曰 王子被擄之言 先到成川云 此何說耶).”; 1592.9.27. “왕세자가, 왕자들이 사로잡히고 정릉이 파헤쳐지는 변고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서 형조 판서 이현국을 보내 행재소에 달려와 묻게 하였다(王世子聞王子被執 靖陵掘土之變 遣刑曹判書李憲國 奔問行在).”; 1592.10.2. “안변에서의 비밀 문서가 여기에 왔는데, 금·은과 호피·표피 등의 물건을 왜통사를 시켜 들여보내 준다면 탈출을 기도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비변사에 이르러(安邊秘密文書 來此云 金銀 虎豹皮等物 使倭通事齎持入送 則可以圖出 云 言于備邊司).”라는 등의 기록으로 보아 1592.9.4 이전에 포로가 되었고, 10.2에는 안변에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표 3〉 홍주 거주 시기의 편지 수발신 내역

대상	수신	송신	비고
어머니(남씨)	1593년 5.8.	.	1회
아들(윤겸)	1592년 11.1./11.16./11.26/11.29./ 12.3./12.22.	1592년 11.30. /12.4.	8회
아들(윤해)	1592.12.24.	.	1회
남동생(희철)	1593년 5.8.	.	1회
여동생(남매)	.	1592년 12.21.	1회
장수 처남댁	1592년 12.29. 1593년 4.28.	1592년 12.29.	3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남인 윤겸과는 8개월 기간에 8회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의논하고 전황에 대해 전해 듣는다. 관직²⁹에 있었던 장남이 그나마 전황에 대해 알 수 있어 오희문에게 전쟁의 진행 과정을 파편적이거나 전하고 있다. 여동생과 남동생과도 각 1회씩 편지로 소통하며 가족의 근황을 들으려 노력하고, 자신이 장수에 머물며 도움받았던 처남 이빈의 처와도 편지를 주고받으며 안부를 확인한다. 전염병을 피해 영암 여동생의 집에 머물던 어머니에게도 편지를 받는다. 이 시기는 관의 도움 없이 소문에 의지하여 스스로 전황을 파악하고, 가족들과는 편지로 소통하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불안정한 정보망 속에서 지구책을 마련하던 시기였다.

4. 임천 시기(1593.6.19~1596.12.19)

: 가족 중심의 소통

이 시기에 제2차 진주성 전투(1593.6.22~6.29)에서 진주성이 함락되었으며, 전면적인 전투는 중지된 상태에서 1593년 12월부터 명나라와 일본 사이에 강화 교섭이 시작되었으나 1596년 8월 최종 결렬되어 정유재란

(1597.1.)의 전운이 감돌던 시기이다.

이때 오희문은 전쟁 재발에 대한 염려로 장차 가족들의 안위에 대해 노심초사한다.

〈표 4〉 임천 거주 시기의 소통 내역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진주성 함락(1593.6.29)	1593.7.6.	임천	득문	7일	전통(傳通)
임해군 순화군 방면 사실(1593.8.6) ³⁰	1593.8.8.	임천	편지	2일	임천군의 아전 편지
선조 거동 사실(1593.8.18) ³¹	1593.9.19.	임천	편지	31일	윤함 장인
명나라 사신의선조 책망사실(1593.윤11.12.) ³²	1593.윤11.24.	임천	득문	12일	지인
명군 철수 만류(1594.7.22) ³³	1594.7.23.	임천	득문	1일	지인
좌의정 유희 탄핵 논의(1594.12.14) ³⁴	1594.12.23.	임천	득문	9일	조보
정승 이산해 복직(1595.1.1) ³⁵	1595.1.22.	임천	득문	22일	조보
충청도 수군 사고 사실(1595.3.5) ³⁶	1595.3.2.	임천	소문	-3일	.
이원익 우의정 발탁 사실(1595.6.1) ³⁷	1595.6.7.	임천	득문	6일	조보

30 『선조실록』, 1593.8.6. “정원에 전교하였다. 왕자가 나온다고 하니 선전관을 보내어 호위해 오도록 하라(傳于政院曰 王子出來云 遣宣傳官護來).”라는 기록이 보인다.

31 『선조실록』, 1593.8.18. “상이 재령 땅을 출발하여 작천에서 주정하고 저녁에 해주에 도착하였다(上自載寧地 晝停于鵲川 夕到海州).”

32 『선조실록』, 1593.윤11.12. “해돋이 때에 상이 모화관에 나아가 중국 사신을 맞이하였다 …(중략)… 왕은 경계하고 삼가라(日出時 上出迎天使于慕華館…(中略)…王其戒之慎之).”

33 『선조실록』, 1594.7.23. “비변사가 아뢰기를, 유 총병이 철수하는 일은 매우 민박하기 때문에 동궁께서 친히 찾아가 머물러 주기를 청하려고까지 하니 참으로 지당합니다(備邊司啓曰 劉總兵撤回之事 甚爲悶迫 故東宮至欲親往請留 誠爲允當).”

34 『선조실록』, 1594.12.26. “사헌부와 사간원이 아뢰기를 좌의정 유희를 체직시킬 것을 전에 아뢰었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이처럼 논하니 마땅히 억지로 따라야 하겠다(司憲府 司諫院 左議政俞泓遞免事 前啓 答曰 如是論之 當勉從之).”

35 『선조수정실록』, 1595.1.1. “좌찬성 정탁이 이산해를 사면해 주기를 청하자, 상이 그대로 따르고 이내 직첩을 도로 주었다(左贊成鄭瑑請赦李山海 上從之 仍還給職牒).”

36 『선조실록』, 1595.3.5.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는 수군 및 군량·전선·군기가 모두 탕갈되어 수습하기가 어렵고 온 도의 인력마저 이미 기진해 있다고 합니다. 출발하자마자 불행하게도 바닷속으로 휩쓸려 들었는데, 전해 듣기로는 온 배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었다 하니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備邊司啓曰 忠淸道水軍及糧餉 戰船 軍器 蕩竭之餘 艱難收拾 一道人力已盡 而發行之初 不幸瀾沒於海中 傳聞一船之人 死亡幾盡云 極爲慘惻).”

37 『선조실록』, 1595.6.7. “상이 별전에 나아가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략)… 누가 그대 대신으로 정승이 될 만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미 전에 복상했는데 중외의 인심이 모두 이원익을 합당하다고 하였습니

29 체찰사 정철은 윤겸을 종사관으로 선발하기 위하여 1592년 10월 21일 군관을 보내 명을 전했고 이 명에 따라 10월 23일 윤겸은 체찰사 막사로 향했다. 『쇄미록』 「임진남행일록」(10.21./10.23.자)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왜적 규모 보고한 품첩내용 (1595.6.8) ³⁸	1595.6.28.	임천	득문	20일	조보
명 사신 출발 사실 (1595.7.11) ³⁹	1595.7.12.	임천	소문	1일	.

이 시기에 오희문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천군 관아에 자주 드나들면서 조보를 통해 전황을 파악하기도 하고 지인으로부터도 여러 소식을 듣는다. 소문이 아닌 믿을만한 정보 출처를 확보한 셈이다. 해주에 선조가 거동한 사실, 명나라 사신이 선조를 책망한 사실, 명군 철수를 만류한 사실 등은 지인한테서 들어 알게 된 사실인데 실록에도 실제로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지인을 통한 정보 입수가 정확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세자가 명군의 철군을 만류한 사실은 실록의 기록과 하루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였다.

임천이 충청도에서 위치하였기 때문인지 충청도 수군에 일어난 사고 사실은 실록에 기록(1595.3.5)되기 3일 전인 3월 2일에 소문으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문은 시차를 두고 전해질 수밖에 없어서 제2차 진주성 전투가 패배(1593.6.29)로 일단락된 7월 3일에도 오희문은 “들으니, 홍적이 진주를 포위한 지 7일째인데 성안의 장수들이 굳게 지키”고 있다고 믿으면서 “진주는 분명 쉽게 함락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확신한다. 7월 5일에도 “물에 떠내려온 시체가 강에 가득하니, 이 때문에 적의 형세가 크게 꺾여 포위를 풀고 물러가서 진을 쳤다”고 믿고 있다. 7월 6일이 되어서야 전통을 통해 패배 소

식을 접하고는 “성 전체가 함락당했다고 하니 몹시 경악스럽다”라고 적는다. 전주에서 오희문의 거주지인 임천까지의 거리가 200km 이상 이격⁴⁰되어 있었음을 고려할 때 7일의 시차를 두고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당히 빠른 정보 전파 속도라 할 수 있다.

8월 8일에는 왕자의 방면 사실을 2일 만에 입수하는데 이는 ‘군의 아전이 서신을 보내와서’ 알게 된 것이다. 중요한 정보가 있을 때 알려주도록 ‘아전’ 등에게 미리 조치했기에 편지를 보내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오희문이 주요 전투 내용이나 왕실의 주요 변화 등의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었던 것은 운에 의해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정보 입수 경로를 미리 확보하고 주변의 소식을 관심 있게 듣는 등 최선을 다해 소통 노력을 경주한 결과인 것이다.

같은 사안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단편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의 공식 소통 채널인 조보를 통하여 정보를 듣게 된 경우는 실록의 기록과 비교하여 9일~22일이 소요되었지만, 소문이나 지인을 통해 듣게 된 경우는 실록보다 3일이 앞서거나 최대 1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정제되어 ‘조보’라는 형태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고, 소문의 내용도 시차는 있었지만 비교적 정확하였던 사실로 볼 때 조보를 볼 수 없었던 여타의 사대부나 일반 백성들도 소문들을 통해 어느 정도는 전황을 파악하고 조정의 움직임도 대체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소문이 더 정확하고 상세한 경우도 발견된다. 충청도 수군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오희문은 “배안의 부엌 쪽에서 불이 나 화약을 보관한 곳으로 불길이 번져 화약이 크게 터지는 바람에 배 안에 있던 사람이 모두 죽었다고 한다. 간혹 물에 뛰어든 자도 있었지만, 목숨을

다. 전에는 평안도가 근본이 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소신도 그대로 유입시킬 것으로 아뢰었으나 지금은 원익을 정승으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上御別殿 引見 上曰…(中略)…誰可代者 成龍曰 已有前卜 内外人心 咸以李元翼爲當 而前者以平安道爲根本之地 故小臣亦 啓姑留 今則似當以元翼爲之).”

38 『선조실록』, 1595.6.8. “접대 도감이 아뢰기를, 어제 왜영에서 돌아온 양빈이 문견한 내용으로 품첩을 만들어 사신에게 바쳤으므로 그 첩을 등서하여 올립니다(接待都監啓曰 昨日 自倭營回來楊賓 以其聞見 呈稟帖于天使 故其帖騰書以入).”

39 『선조실록』, 1595.7.11. “명사 중 부사가 남쪽으로 내려가니, 상이 승례문 밖에서 전별연을 베풀기 위해 인사 정각에 동가하였다(副天使南下 上餞宴于崇禮門外 寅正動駕).”

40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를 사용하여 자동차 이동 조건으로 임천군청과 전주시청 사이의 거리를 검색한 것임.

건진 자는 거의 없고 수군절도사 또한 물에 뛰어들었다가 아들과 함께 빠져 죽었다고 한다”라고 소문을 듣는다(을미일록, 3.2). 이런 사고 사실은 ‘온 배의 사람들이 거의 모두 죽었다 하니 참혹하기 그지없습니다(一船之人 死亡幾盡云 極爲慘惻).’라는 간략한 기록(선조실록, 1595.3.2.조) 내용보다 더 상세하고 들은 시기도 더 빠르다.

조보를 통한 정보 입수는 조보를 보는 시기에 따라 시기가 빠르거나 늦거나 하여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좌의정 탄핵(9일), 우의정 발탁(6일) 등의 고위직과 관련된 소식은 비교적 빠른 시기에 조보를 통해 인지하게 된다. 여기서 조보가 관에서만 통용되던 폐쇄된 소식지가 아니라 관직에 있지 않았던 사대부들도 두루 읽고 정보를 공유했던 개방된 소식지⁴¹였음도 알 수 있다. 또, 오희문은 비록 출사하지 않았으나 공문서를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듯하다. 정목(政目)⁴²을 보면서 관리들의 임명 해임과 진급 사실 등을 파악하고 있었고, 방목(榜目)⁴³을 보면서 과거 합격자 명단을 세세히 파악하고 있었다.

정목을 보니, 박여룡이 청양 현감에 제수되었다. 박공은 윤함의 처의 외할아버지의 아우이다. 집이 해주이고 윤함의 처갓집과 이웃이니, 분명 왕래했을 것이다.(갑오일록, 11.23.)

지금 정목을 보니, 별좌(오윤겸)가 시직에 제수되었다고 한다.(을미일록, 2.19.)

별시 방목을 살펴보니, 윤겸은 3등 제13위, 윤함은 제21위, 윤해은 제71위이다. …(중략)… 이번 방목에 삼형제가

모두 합격한 것은 조숙의 아들과 우리 집 아이들 뿐이다.(을미일록, 12.23.)

자신은 출사를 포기했을지라도 아들과 인척, 지인들의 급제, 진급, 이동 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지켜보고 있었다. 이는 단순한 관심을 넘어 전쟁 통에 자신과 가족들이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며느리 외할아버지의 아우’가 청양 현감에 제수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고 ‘분명 왕래했을 것’이므로 거기서 도움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인사과인 포폄(褒貶)⁴⁴까지도 볼 수 있었다.

오늘 포폄을 보았는데 평강이 토를 받았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매우 괴이한 일이다. 전에 들은 바로는 도의 관찰사가 모든 공사 처리에 휘방을 놓으면서 꾸지람만 한다고 하는데, 필시 이로 인해 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병신일록, 7.4.)

충청도 임천에 거주하던 오희문이 강원도 평강 현감으로 근무⁴⁵하고 있던 장남 윤겸의 근무평정 결과를 입수하여 그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 것은 그의 소통력이 보통 수준을 넘어선 방증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관리들과 교류하면서 ‘이몽학의 난’과 관련된 비밀 통문 내용을 듣기도 하고(병신일록, 7.16.), 임금이 진노한 사실도 몰래 얻어듣는다(병신일록, 7.30.). 호남지방에서 역적의 변란에 대해서도 ‘남몰래 들어’ 알게 되지만(병신일록, 윤 8.6.), “아직 그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라고 조심스러워한다. 이처럼 오희문의 소통은 소극적인 소문 입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관련한 진지한 정보 파악이었다.

41 이러한 개방성으로 인해 역설적으로 1596년 들어와서 오희문은 조보에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당시 조정에서 ‘조보가 군기를 누설하고 있다’라고 우려하여 큰 관부를 제외하고 작은 관사에서 등서하는 것을 금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2005, 26쪽 참조.

42 『표준국어대사전』, 벼슬아치의 임명과 해임을 적어 놓은 문서.

43 『표준국어대사전』, 과거 합격자 명부

44 포폄법(褒貶法)은 조선시대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해 포상과 처벌에 반영하던 인사행정 제도이다.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0206>(접속일: 2026.6.4).

45 1595년 8월 4일 일기에 윤겸이 평강현감으로 임명되었다고 적고 있다. 포폄을 읽어본 병신년(1596)은 임명된 지 1년쯤 지난 때이다.

〈표 5〉 임천 거주 시기의 편지 수발신 내역

대상	수신	송신	비고
어머니 남씨	1593.11.5.	1593.11.2.	7회
	1594.7.9./9.7.	1594.3.26.	
	1596.11.9.	1596.11.28.	
부인 이씨	1594.1.1./6.6./7.8. 1595.7.18./12.15./12.16.	.	12회
	1596.2.1./2.3./6.4.	1596.1.27./1.30./8.19.	
아들 윤겸	1593.9.17./9.19./윤11.28.	.	58회
	1594.7.6./9.18./12.12.	1594.3.1./4.4.	
	1595.1.4./3.22./4.7./5.4./5.20./6.25./7.6./7.12./7.24./7.28./8.4./8.15./9.9./10.7./10.11./10.24./11.08./12.22.	1595.3.24./4.5./4.26./7.1./9.28.	
	1596.1.3./2.6./2.30./3.26./4.12./6.3./6.15./7.23./8.23./9.16./9.30./11.9./12.7.	1596.1.4./1.27./3.2./4.14./4.29./5.6./6.6./7.24./8.18./8.24./9.13./9.26./10.3./11.28.	
윤겸 처	1595.7.24.	.	1회
아들 윤해	.	1593.11.24.	43회
	1594.9.12.	1594.9.9./9.12./10.30.	
	1595.1.9./1.9./1.15./4.21./5.4./7.5.	1595.2.26./4.5./4.26./8.6./8.14.	
	1596.1.21./2.7./2.10./2.15./2.29./2.30./4.3./4.12./5.22./7.28./8.21./8.24./윤8.6./10.8./10.10./11.9./11.20.	1596.1.2./1.21./1.27./3.2./4.14./7.24./8.22./윤8.9./10.11./11.28.	
아들 윤함	1593.9.19.	.	21회
	1594.6.1./10.4.	1594.6.19./10.16.	
	1595.1.17./2.29./2.30./4.3./8.2./9.8.	1595.1.19./3.27./5.11.	
아들 윤성	1596.1.3./2.7./4.12./7.28./8.14.	1596.1.4./7.24.	1회
	1596.윤8.27.	.	
큰딸	1594.8.29.	1594.8.29./10.29./10.30.	13회
	1595.3.13./4.30./7.1.	.	
	1596.8.8./윤8.16./윤8.26./10.4./11.19./12.19.	.	
큰사위 (함열 현감)	1593.윤11.22.	.	29회
	1594.3.17./3.22./3.26./7.3./8.16./8.17./9.5./11.3./12.6./12.8.	1594.8.21./11.2./11.9./11.25./11.25./11.29.	
	1595.3.7./4.20./9.19.	.	
	1596.2.11./3.27./4.26./6.25./7.2./윤8.26./9.4.	1596.3.27./윤8.17.	
남동생 (희철)	1594.2.6./4.6./6.24./7.9./9.7.	1594.6.23./10.2.	18회
	1595.4.3./5.10./6.4./8.2./8.15.	1595.12.16.	
	1596.3.6./10.8./11.9./11.9.	1596.9.25.	
동생의 부인	.	1596.4.17.	1회

대상	수신	송신	비고
여동생 (임매)	1594.4.27./12.2.	1594.9.28.	14회
	1595.2.20./2.30./4.3./8.11./10.3.	1595.1.11./1.15./9.3.	
	1596.윤8.10./11.7.	1596.3.29./4.28.	
임매 남편	1595.2.20./4.14.	1596.6.4.	2회
여동생 (김매)	1593.8.14.	1593.9.24.	2회
김매 남편	1594.12.2.	.	10회
	1595.3.6./3.16./4.4./11.4.	1595.1.5./2.30./3.10./4.5./11.19.	
여동생 (남매)	.	1594.3.9.	9회
	1595.3.27./11.7.	1595.1.18.	
	1596.1.11./5.14./11.9.	1596.4.14./6.6.	
남매 남편	1595.3.27./11.7.	1595.3.27.	2회
조카 심열	1593.윤11.23. 1594.2.29. 1595.3.22.	1594.11.28. 1595.5.11.	5회
사돈 (신별)	1594.7.9.	1594.7.3.	2회
사돈 (최경유)	1596.5.14.	.	1회
윤함 장인	1593.9.19.	.	1회
처조카 장인	1594.6.6.	1594.6.6.	2회
처사촌 (이귀)	1594.10.25.	1595.1.15.	2회
처조카 (이시윤)	1595.5.11.	1595.10.28.	2회
처남 (이빈)	1595.3.12.	.	1회
처남의 부인	.	1594.10.25. 1595.1.14.	2회
처사촌 (이분)	1596.6.18.	.	1회
처조카 (이시중)	1595.6.11.	.	1회
우계 선생	1593.윤11.23. 1594.2.29.	1593.윤11.25. 1594.3.9.	4회
지인 이별좌	1596.9.5./9.27./11.17.	1596.9.5./9.10./9.25./11.3./11.11.	8회
지인 송인수	1595.7.24. 1596.6.19.	1596.6.19./9.13.	3회
지인 이덕후	1595.8.26./11.6.	1595.8.26.	3회
지인 김백온	1596.윤8.16./9.25./11.23./	.	3회
지인 류선민	1596.9.26.	1596.9.6./10.22.	3회

대상	수신	송신	비고
지인 조응록	1595.1.21.	1595.1.21.	2회
지인의 형수	1594.7.11.	1594.7.12	2회
지인 류선각	1595.8.1. 1596.6.13.	.	2회
지인 조문화	1595.11.8.	1595.11.8.	2회
지인 조존성	1596.10.24.	1596.10.24.	2회
지인 이청	1594.10.20.	1594.10.20.	1회
지인 송영구	.	1594.12.27.	1회
지인 남경신	1595.2.9.	.	1회
지인 조우	1595.12.1.	.	1회
지인 이상길	1596.1.10.	.	1회
지인 이창복	1596.윤8.23./	.	1회
지인 신상례	.	1596.9.5.	1회
임천 군수	1596.11.25.	1596.11.4./11.9./11.10./11.25.	5회
용안 현감	1596.9.10.	1596.9.10.	2회
서천 군수	1596.11.22.	.	1회
찰방 김덕장	1596.10.9.	.	1회
상판관	1596.10.15.	.	1회

가족들과의 서신 교환은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염병을 염려하여 영암의 여동생 집으로 피신한 어머니와는 총 7회의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있다. 부인과의 편지 소통에서는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오희문은 1594년 1월 1일에 영암으로 이동하던 중 장성(長城)에서 편지를 받아보는데 이 편지는 지인이 임천에 들렀다가 편지를 받아와 전한 것이다. 오희문의 부인 이씨가 오희문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여 지인을 통해 보낸 것이다. 6월 6일에는 지인을 보러 방문한 이산(尼山)으로 편지를 보내

집안 소식을 전하고 있다. 또, 7월 8일에는 오희문이 며칠 동안 방문한 임천군 관아로 편지를 보내 가족의 소식을 전하기도 한다. 여성이라도 의지만 있으면 어느 때라도 편지를 보낼 수 있었으며, 편지 전달도 무리 없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작성한 편지에 대한 지칭은 서로 달라 일관성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어머니의 편지는 모두 서(書)라고 하고 있고, 부인 이씨의 편지는 서(書) 또는 서신(書信)이라고 하고 있으며, 큰딸의 편지는 서(書) 또는 간(簡)으로, 여동생 임매의 편지는 서(書), 신서(信書), 서신(書信), 간서(簡書)로 적고 있다. 이러한 편지 호칭은 형식의 차이인지, 한글과 한문 편지를 구별하는 지칭인지, 오희문 자신의 기준인지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 시기에 오희문은 어머니와의 재회와 이별을 반복⁴⁶하며 가족적 소통을 강화하였다. 편지와 직접 방문을 통한 가족 간의 소통이 중심이 되었으며 지인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적 정보도 획득한다. 직접적 전투는 없었지만, 전쟁 재발의 우려가 커지면서 전쟁 초기 홀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던 때의 염려로 가족 중심의 소통을 더욱 활발히 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아들 윤해가 처갓집인 진위로 간 이후로 한 달 여간 연락이 없자, 직접 자신이 부리던 종을 그곳으로 보내 자신의 안부 편지를 전하는 적극성도 보인다.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수용하는 수동적인 소통자가 아니라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적극 소통자의 모습을 보인다. 아들 윤해에게 1595년 1월 9일에는 두 통의 편지를

⁴⁶ 1593년 2월 17일에 오희문의 병을 피하여 딸이 거주하는 영암으로 피신한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두 번 영암을 방문하는데 처음은 1593년 7월 19일에 방문하였다가 40여 일 만인 8월 29일에 어머니와 헤어져 9월 9일에 임천으로 돌아오고, 두 번째는 1594년 1월 5일에 영암에 도착하여 1594년 2월 7일에 어머니와 함께 출발하여 1594년 2월 12일에 동생 희철의 거주지인 태인에 어머니를 모시고 2월 16일에 임천으로 돌아온다. 또, 태인에 있는 어머니를 근친하기 위해서 1594년 8월 2일에 도착하여 8월 4일 다시 임천으로 돌아온다. 9월 23일 재차 태인을 방문하여 어머니를 모시고 10월 14일 임천에 도착한다.

받는데 한 통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부친 편지를 받은 것이고, 또 한 통은 집에 도착하여 쓴 편지를 받은 것이다. 당시의 편지는 순차적으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전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작성하여 계속 부쳤고 이러한 서신들은 작성한 순서대로 도착한 것이 아니라 전달을 부탁한 인편이 언제 도착하는가에 따라 선후가 바뀌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595년 1월 11일에 “함열관아의 사내종이 신공을 징수하는 일로 영암으로 내려간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임매에게 편지를 써서 부쳤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편지의 송수신 횟수는 친소관계도 큰 영향 요소였지만, 전달 수단의 유무도 큰 영향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편지 전달은 지금과 같은 체계적인 전달 방식은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들 통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① 직접 사람을 보내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아오게 하는 방법 ② 어느 지역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그 지역에 사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방법 ③ 상호 간에 알고 있는 집에 편지를 맡겨두고 그 집을 왕래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하는 방법⁴⁷ ④ 지인을 통해 릴레이식으로 전달하는 방법⁴⁸ 등을 사용하였는데 급한 용무일 경우는 첫 번째 방식을 사용하였고, 단순 안부 문의나 근황 전달을 위해서는 나머지 방식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전달 방식이 중첩되어 어느 날은 하루 동안에 동일인으로부터 다른 날 작성된 편지를 동시에 받기도 한다. 1596년 11월 9일의 경우, 오후에 한산에서 온 종으로부터 오윤해의 편

지와 동생 언명의 편지를 받았는데, 저녁에 평강에서 온 종으로부터 어머니의 편지, 동생 언명의 편지, 누이의 편지를 전해 받는다. 곧, 언명은 안부 편지를 여러 가지 전달 수단을 동원하여 형인 오희문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연락 체계인 봉수와 역참이 전쟁 중에 실제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는데⁴⁹ 민간에서 편지가 활발히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편지 전달 방법에 대한 정밀한 후속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편지는 가족과 지인들과의 안부 문답과 정보 입수뿐 아니라 생활고 해소의 방편으로도 쓰였다. 1596년 11월 4일의 경우 임천 군수에게 편지를 써서 ‘약 달일 숲’을 구하는 편지를 쓰고 11월 9일에는 그 답례로 생은어 2두름을 편지와 함께 보내고, 11월 10일에는 생대구와 알젓 등 임천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을 편지와 함께 보낸다. 또, 편지는 청탁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1596년 11월 25일에는 빌려 쓴 쌀을 바치지 못해 아전이 날마다 와서 독촉하자 임천 군수에게 편지를 써서 감해줄 것으로 요청하고 ‘줄여서 없애도록 하겠다’라고 답장받는다. 안부 문의, 생활고 해소, 청탁 등을 위한 소통의 도구로 써 편지는 유용한 수단이었다.

해주에 사는 셋째 아들과의 편지 교류에 유독 시간이 오래 걸린다. 1595년 1월 17일에는 1594년 12월 12일 작성된 편지가 35일 만에 전달되고, 1595년 8월 2일에는 그해 6월 1일에 작성된 편지가 61일 만에 전달된다. 늦게 전달되었지만, 오희문은 8월 2일 받은 편지에서 손주가 5월 7일에 태어난 사실을 인지하게 된다. 여동생 김매의 사망(1594.3.12) 소식도 1594년 4월 6일 24일 만에 아우 희철의 편지로 알게 되는데 이로써 사람이 죽고 태어나는 중요한 소식은 늦더라도 반드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오희문이 함열 사위 집에서 지내던 1596년 1월 27일 함열 현감에게 시집간 큰딸이 아들을 낳자, 가

47 진위에 있던 둘째 아들 윤해는 1597년 6월과 7월에 편지를 써서 한양에 사는 오희문의 종인 광노의 집에 맡겨두었고, 이를 오희문의 동생인 희철이 광노의 집에서 이 편지를 찾아서 1597년 7월 29일 오희문에게 전달한다. 또, 웅진에 있던 셋째 아들 윤함은 1598년 5월 22일 편지를 써서 웅진을 방문한 여동생 남매의 종에게 전달하고 이를 종이 보관하고 있다가 평강현의 관인이 남매집에 들러서 편지를 가져와 6월 16일에 24일 만에 오희문에게 전달한다.

48 해주에 거주하는 윤함의 편지 전달방식이다. 1595년 6월 1일 윤함이 편지를 써서 청양에 전하고, 청양에서 운곡의 주지승 법련에게 보냈으며, 법련은 상좌승을 보내 8월 2일 오희문에게 편지를 전달한다.

49 김문자, 앞의 논문, 7~17쪽.

족들에게 빨리 그 소식을 전하고자 당일에 부인, 큰아들 윤겸, 둘째 아들 윤해에게 편지를 쓴다.

오희문은 어머니와 부인, 큰딸, 여동생, 며느리 등 집안의 여성들과도 편지를 주고받았지만, 남동생의 부인(1596.9.25.송신), 처남의 부인(1594.10.25.송신/1595.1.14.송신) 등 인척 관계의 여성뿐 아니라, 지인의 형수(1594.7.11.수신/1594.7.12.송신)와도 편지를 주고받는다. 남성 간 또는 여성 간의 편지 송수신에 대해서는 상식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나, 남동생 부인이나 처남의 부인에게도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지인의 형수와도 문안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임천에서의 거주 기간이 총 3년 6개월(1,275일) 인데 총 290통의 편지가 수발신되었으니 23일에 한 번씩 편지가 오간 것인데 이는 순전히 인편으로만 전해진 당시의 상황에서 적은 숫자라 할 수 없다. 오희문은 가족뿐 아니라 다양한 지인들과도 편지를 교류하는데 사돈, 사위, 매부, 처사촌, 처조카, 처남, 조카뿐 아니라 처조카의 장인과의 교류한다. 누구인지는 특정할 수 없으나 거명된 지인들도 16명에 이른다.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과 활발히 교류한 오희문의 ‘소통력’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5. 평강 시기(1597.2.13~1598.12)

: 안정된 생활 속 적극 소통

오희문은 아들의 임지인 평강에서 거주하기로 결심하고 평강으로 이사한다. 그러나, 이사하는 과정(1596.12.20~1597.2.12)에서 막내딸 단아를 잃는다. 막내딸은 1596년 9월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계속 고생하였는데 병을 이기지 못하고 1597년 2월 1일에 사망한다. 이 이사하는 과정에서 오희문의 편지는 주로 약과 식량을 구하고, 단아의 병세를 가족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부다. 정보탐색보다는 딸의 병을 구완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이

었다. 어머니(2회)와 아들 윤겸(6회), 윤해(1회)에게 소식을 전하고, 수원 부사에게 딸의 상을 치르기 위해 상례에 쓸 물건을 구하는 편지를 쓴 것이 전부다.

평강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1597년 2월에는 일본이 휴전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다시 조선을 침공하여 정유재란이 발발하였다. 그해 7월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칠천량에서 대패하자 이순신이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되어 9월에 명량해전에서 대승을 거두었고, 일본군은 남쪽에 성을 쌓고 웅거하기 시작하였다. 1598년 8월에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이 철수를 시작하였으며 11월 19일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전사하였고, 12월에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였다.

이때 오희문은 장남 윤겸이 평강현 현감으로 재직하고 있어 많은 부조를 받아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평탄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스스로 “평을 계속해서 얻어먹으니, 역시 관청의 힘을 알겠다(兒難連續得食 亦知官之力也)(1597.7.15)”라고 다행스러워하면서도, 전쟁과 정국 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관찰하던 시기였다.

〈표 6〉 평강 거주 시기의 소통 내역

사건	소식들은 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소서행장과 가등청정 재복상	1597.2.27.	평강	득문	·	관문(關文)
장남 윤겸 급제 사실	1597.3.19.	평강	득문	·	방목(榜目)
원균 승리 소식	1597.4.5.	평강	득문	·	조보
강원도 관찰사의 윤겸 칭찬 장계	1597.6.24.	평강	득문	·	조보
유정의 제독 승진	1597.7.5.	평강	득문	·	조보
칠천량 해전 패전 소식	1597.7.29.	평강	득문	14일	남동생 희철
정유재란 경과 ⁵⁰	1597.8.9.	평강	편지	·	아들 윤겸
처사촌 이귀의 토산 현감 임명 사실	1598.1.5.	평강	득문	·	도목정 ⁵¹
윤두수 좌의정 임명 사실 ⁵²	1598.3.5.	평강	득문	10일	조보

⁵⁰ 윤겸이 편지로 ‘가등청정이 8월 3일에 7명의 장수를 거느리고 상륙하여 전라도로 향했고, 세 장수는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를 향하여 함께 수륙으로 진격한다’라고 전했다.

⁵¹ 조선시대 이조·병조에서 행하는 인사행정.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15631>(접속일: 2026.6.21); 도목정사(都目政事)의 준말.

⁵² 『선조실록』, 1595.2.25. “윤두수를 좌의정으로 삼았다(尹斗壽爲左議

사건	소식들은날	장소	수단	기간	비고
무주 점령 애적 섬멸 사실 ⁵³	1598.4.29.	평강	득문	10일	조보
성주 주둔군 군량 부족 사실	1598.7.30.	평강	득문	·	조보
선조의 군문 하례 사실 ⁵⁴	1598.12.3.	평강	득문	8일	조보
이순신 사망사실 ⁵⁵	1598.12.3.	평강	득문	14일	조보
이순신 우의정 추증 사실 ⁵⁶	1598.12.16.	평강	득문	16일	조보
대사령 내린 사실 ⁵⁷	1598.12.16.	평강	득문	7일	조보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평강에서 거주할 시기에는 장남이 평강 현감으로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천 시기보다도 더 자주 조보를 읽어볼 수 있었다. 임천 거주 1,275일에 조보에서 정보를 얻은 경우는 4회인데, 평강 거주 665일에 10회이니 조보를 통한 정보 입수가 임천 시기보다 5배 정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관에서 오가던 관문(關文)을 통해 전쟁 상황을 파악하고, 과거 합격자 명부인 방목(榜目)을 보고 장남의 과거 급제 사실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평강 현감직에 있던 아들의 편지로 정유재란의 경과까지도 소상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도목정을 통해서도 처사촌의 현감 임명 사실도 파악한다. 장수 시기에는 조보를 읽은 처남의 편지로 정

政).”

⁵³ 『선조실록』, 1595.4.19.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번에 무주 등지의 적들이 우리 경내에 깊이 들어와 분겁을 자행하였는데, 이광악·이경준·원신 등이 힘을 합해 소멸하여 다수의 적을 참획하였고, 나머지 적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밤을 이용하여 도주하였다고 합니다(備邊司啓曰 今此茂朱等處之賊 深入我境 肆行焚劫 而李光岳 李慶濬 元愼 等 協力進勦 多數斬獲 竟使餘賊 畏憚遁遁).”

⁵⁴ 『선조실록』, 1598.11.25. “상이 이어 만 경리의 관사에 나가 다례를 행하였다(上仍幸萬經理館 行茶禮).”

⁵⁵ 『선조실록』, 1598.11.23. “좌의정 이덕형이 치계하기를 금월 19일 사시에 예교의 왜적이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갔습니다(左議政李德馨馳啓曰 本月十九日巳時 曳橋之賊 專數撤渡).”; 『선조실록』, 1598.11.24. “정원이 아뢰기를 …(중략)… 이순신은 전사하였으니 그 대임을 즉시 차출 하여야 한다(政院啓曰…(中略)… 李舜臣則戰死矣 其代卽爲差出).” 등의 내용으로 보아 이순신이 전사한 1598년 11월 19일 이후 일본군이 완전히 철수하였고, 그 후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⁵⁶ 『선조실록』, 1598.11.30.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순신에게 증직하고 치부하고 관에서 장사를 도우라 (傳于政院曰 李舜臣贈職致賻 官庀葬事).” 이 기록으로 보아 선조가 추증을 지시한 이후 실제로 우의정에 추증되고 이것이 관보에 실렸을 것이므로 그 기간은 더 짧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

⁵⁷ 『선조실록』, 1598.12.9. “비변사가 아뢰기를, …(중략)… 원손 탄생은 온 나라의 종묘사직과 생민의 더없이 큰 경사이니 대사령을 내리는 것이 지당합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備邊司啓曰…(中略)… 元孫誕生 一國宗社生民之慶 莫大於此 大赦至當 傳曰 依啓).”

보를 간접 파악하고 소문 등을 통해 불확실한 정보를 들었지만, 평강 시기에는 관의 공적인 정보를 안정적으로 입수하여 상황 전반을 이전과는 달리 두루 파악할 수 있었다.

〈표 7〉 평강 거주 시기의 편지 수발신 내역

대상	수신	송신	비고
부인 이씨	1597.4.3./4.26.	·	4회
	1598.3.5./4.6.	·	
아들 윤겸	1597.2.22./2.25./2.28./3.6./3.7./3.13./3.16./4.5./4.12./5.5./5.13./6.13./5.16./5.16./5.19./6.4./6.7./6.8./6.13./6.18./6.27./6.27./6.29./6.30./7.2./7.5./7.10./7.14./7.17./7.19./7.23./7.25./8.2./8.4./8.7./8.9./8.9./8.11./8.13./8.17./8.21./8.23./8.26./8.29./9.3./9.5./9.6./9.22./10.2./10.4./10.8./10.11./10.12./10.15./10.15./10.17./10.17./10.27./10.27./11.17./11.6./11.17./11.17./11.23./12.3./12.6./12.13./12.23./12.26./12.28.	1597.2.15./2.29./5.17./5.18./6.9./6.14./6.23./6.23./6.24./6.30./7.1./7.16./8.2./8.10./8.12./8.17./9.4./10.4./10.8./10.9./10.9./10.12./10.14./10.24./11.17./11.22./11.23./12.4./12.5./12.16.	183회
	1598.1.9./1.24./1.27./1.28./2.1./2.9./2.15./2.27./2.28./3.8./3.9./3.12./3.19./3.20./3.23./3.29./4.3./4.12./4.15./4.20./4.25./4.29./5.4./5.10./5.17./5.19./5.22./5.22./6.2./6.3./6.8./6.12./6.14./6.16./6.29./6.30./7.2./7.3./7.7./7.15./7.17./7.30./8.2./8.10./8.16./8.20./8.27./9.12./9.16./10.9./10.11./10.27./11.1./11.9./11.13./11.15./11.16./12.5./12.19.	1598.1.27./1.29./2.9./2.16./2.28./2.29./3.7./3.8./3.12./3.16./3.19./4.15./6.3./6.10./6.11./6.17./6.30./7.3./7.8./7.17./10.25./11.2./11.11./11.26.	
아들 윤해	1597.3.1./3.4./3.6./3.73/3.13./3.16./4.5./6.4./7.29./8.19./8.27.	1597.2.15./6.16./7.9.	14회
아들 윤함	1597.6.24.	1597.2.26./7.9.	6회
	1598.6.16.	1598.5.18./8.3.	
큰딸	1597.5.10./9.21.	1597.7.9./10.8.	10회
	1598.1.9./8.5./10.11.	1598.4.29./8.28./10.19.	
둘째딸	1597.4.5./4.7.	·	2회
만사위(신응구)	1597.5.10./9.21./9.22./10.12.	1597.3.27./9.24.	15회
	1598.1.28./2.18./4.26./4.29./8.5./8.24./10.11.	1598.4.29./10.19.	
남동생(희철)	1597.2.20./2.22./3.24./3.26./5.10./6.4./8.11. 1598.3.5.	1597.2.15./6.16.	10회
여동생(임매)	1598.6.23.	1598.1.8./4.29./6.24.	4회
여동생(남매)	1597.3.26./6.4./9.11.	1597.3.21./9.12.	17회
	1598.1.16./1.21./2.10./5.12./6.16./7.10./8.20./10.15.	1598.1.4./4.29./5.18./12.9.	
남매 남편(남상문)	1597.3.24.	·	5회
	1598.1.21./8.20./10.15./11.11.	·	

대상	수신	송신	비고
조카 심열	1598.2.15./12.5.	.	2회
우계 선생	1597.9.20.	.	1회
사돈(신상례)	1597.9.21./10.12./11.10.	1597.10.12.	10회
	1598.1.2./1.19./2.2./8.24.	1598.1.19./2.3.	
사돈(최경유)	1597.12.17./	1597.12.17.	9회
	1598.6.17./7.14/11.26./12.30.	1598.6.17./7.14./11.26.	
지인 임현	1598.1.21./5.12.	1598.1.8.	3회
지인 최판관	1597.5.25./9.28. 1598.2.15.	1597.9.28.	3회
지인 민참판	1598.1.21.	1598.1.8.	2회
지인 권호덕	1597.7.7.	.	1회
지인 권징	1597.4.12.	..	1회
지인 한효중	1597.10.15.	.	1회
지인 권학	1597.12.4.	.	1회
지인 정사과	.	1598.1.21.	1회
지인 최응진	1597.2.15.	.	1회
지인 홍인현	1597.3.2	.	1회
지인 조우자옥	1598.3.29.	.	1회
지인 최중운	1598.4.1.	.	1회
지인 중소 씨	1598.5.12.	.	1회
지인 이은신	.	1598.8.11.	1회
토산 현감	1597.9.15. 1598.12.11.	1597.9.14. 1598.12.11.	4회
마전 현감	.	1597.8.2.	1회
이천 현감	.	1598.2.25.	1회

임천 시기에도 큰아들과의 편지 수발신은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은 58회에 이르렀는데, 평강 시기에는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지 교류가 183회에 이른다. 이는 3~4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거나 받았다는 것인데 임천 시기의 6배에 이르는 편지 교류였다. 이에 반해 차남 윤해(43회)와 삼남 윤함(20회)과의 편지 교류는 총 63회에서 20회로 현격히 줄었다. 큰 사위 신응구와도 임천 시기 29회에서 15회로, 큰딸과도 13회에서 10회로 줄었지만 거주 기간을 고려하면 송·수신 빈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지인과의 교류도 14명 수준으로 임천 시기와 비슷하다. 따라서, 이 시기에도 여타 사람들과는 임천 시기와 같은 수준으로 교류했으나, 이때는 장남의 생활 부조와 전쟁 정보 등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남과의 편지 교류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특이하게도

여동생 남매와의 교류가 늘어나는데 이는 남매가 이 시기에 강원도에서 거주하여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교류가 쉬워진 것이 주원인으로 보인다. 또, 부인 이씨가 아플 때는 둘째 딸이 엄마를 대신하여 편지를 쓰기도 했는데(1597.4.5./4.7.), 사대부가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소양을 갖추고 있었음도 알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평강 현감으로 근무하던 큰아들 윤겸과는 지척에 있으면서도 자주 편지를 주고받는데 윤겸으로부터는 하루에 두 번 편지를 받기도 한다(1597.5.16). 그래서 오희문은 “평강의 편지가 또 왔다(平康書又至)”라고 놀라며 반가워한다. 오희문의 입장에서 하루에 두 번 편지를 쓰기도 한다(1597.6.23). 평강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아침에 편지를 써서 아들 윤겸에게 보냈는데 오후 늦게 평강현에서 사람이 물품을 갖고 오자 다시 편지를 써서 보낸다. 아침 편지는 안부 편지, 오후 편지는 물품을 받은 것에 대한 접수증 성격의 편지로 추정된다.⁵⁸ 이와 같이 다녀가는 사람이 있으며 하루에도 몇 통씩 수시로 요즘 SNS를 주고받듯이 소식을 주고받았고,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했더라도 다시 급히 알릴 소식이 있으면 다시 편지를 보내기도 했다. 하루에도 여러 통의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그만큼 소식 전달이 활발하고 막힘이 없었음을 방증한다.

정유재란의 소식이 여러 곳으로부터 들려오자, 소식을 듣지 못한 여동생 임매의 안위를 염려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보를 탐색한다. 1598년 1월 8일에 평강현 소속의 종이 길을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종으로 하여금 ‘민참판댁에 가서 정자 임현이 머물고 있는 곳을 물어 영암의 임진사 가족의 생사와 간 곳을 탐문’하게 한다. 임매의 소식을 오랫동안 듣지 못하자 그를 알만한 사람을 찾아가 묻고 물어 그 소식을 듣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여동생 임매가 살아있다는 사실

⁵⁸ 여러 통의 편지를 받는 사례는 1597년에는 6.27./8.9./10.9./10.15./10.17./10.27. 1598년에는 5.22. 등에 나타난다.

을 인지하게 된다. 자신도 일기에 ‘탐문(探問)’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볼 때 그의 이러한 소통 노력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97년 9월 14일에는 ‘적의 소식과 명나라 군사의 움직임, 중전의 행차가 지나갔는지를 들으려고’ 토산 현감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9월 15일 토산 현감으로부터 ‘내전은 오늘 삭녕에서 이 현으로 올 것이고, 동궁도 종묘의 신위를 모시고 서쪽으로 간다’라는 등의 소식을 접한다. 이처럼 평강에서의 사회와의 소통은 소문을 득문하는 수준에서 나아가 ‘탐문’하고 편지로 정보를 ‘입수’하는 능동적 활동으로 진화한다.

6. 결론

오희문이 임진왜란 시기에 주변의 정보를 획득하고, 가족과의 소통을 위해 편지를 주고받는 등의 ‘소통’ 노력은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오희문의 소통은 관의 각종 문서와 소문 등 공적·비공적 경로를 통해 전황과 정치 상황을 파악하는 사회적 소통과 편지와 직접 방문을 통해 생사를 확인하고 가문의 안위를 지키려는 가족 간 소통 노력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오희문의 노력은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효율적으로 유지되었다. 오희문의 ‘소통력’은 사회적 소통과 가족적 소통에 기반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존 전략으로써 기능하고 있다.

오희문의 이러한 소통 노력을 그가 거주한 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장수시기에는 임진왜란 발발 이후 산속에서 피난하면서도 전황에 촉각을 세우고 관에서 나오는 정보, 의병들이 돌리는 통문, 소문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든 정보를 받아들이려 노력한다. 장수에서는 생존을 위한 정보획득 노력을 기울인 시기였다. 홍주

시기에는 전쟁이 소강상태로 들어갔지만, 주요 정보 출처였던 처남의 근무지 장수현과는 떨어진 곳에서 거주 하였던 관계로 주변의 정보를 들을 수단이 사라져 주로 소문과 전언에 의지하여 전황을 파악한다. 편지 교류는 주로 어머니와 아들, 동생들과 이루어지고 지인들의 생존이 불명확했기 때문인지 지인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다. 이때는 불안정한 정보망 속에서도 소문과 전언 등을 통해 생존을 모색한 시기였다. 임천에서는 소문과 주변인들로부터 전황과 정국 상황을 전해 들으면서 조보를 통한 정보도 얻는다.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인지 어머니, 부인, 아들, 딸, 동생 등과 활발히 편지를 주고받으며 가족의 안위를 확인한다. 가족 중심의 소통을 이어간 시기이다. 평강에서는 아들이 현감으로 있어 관문, 방목, 도목정 등 관의 문서를 상세히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인지 정보수집에 여유가 있었고, 가족이나 친족, 친구들과의 편지 교류도 활발한 특징을 보인다. 아들의 부조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사회와 가족과의 적극 소통을 이어간 시기이다.

이를 통해 살펴건대, 임진왜란 시기에도 관문, 조보, 통문 등 관의 문서가 유통되었으며 오희문은 이러한 관의 문서를 적절히 입수하여 자신과 가족의 생존을 모색하였고, 가족 및 지인들과의 편지 교환을 통해 정보 공유와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었다. 전시에든 공적 네트워크가 작동하고 있었고, 가족이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관의 문서뿐 아니라 소문과 지인들의 전언이 중요한 정보 전달 경로로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란기에도 사회가 다층적 정보망을 통해 유지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른 사대부 일기와의 비교를 통해 오희문의 소통력이 일반적인 것인지 그의 개인적 특성이 발현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오희문, 『쇄미록1-6』, 황교은·채현경·전형윤·이주형·유영봉·장성덕·강지혜·김유빈·안성은 역,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_____, 『쇄미록7-8 교감·표점』, 황교은·채현경·전형윤·이주형·유영봉·장성덕·강지혜·김유빈·안성은 교감·표점, (주)사회평론아카데미, 2018.

2. 단행본 및 논문

김경수, 「조보의 발행과 그 성격」, 『사학연구』 58-59, 한국사학회, 1999.

김경태, 「쇄미록에 나타난 임진왜란 관련 정보의 전달 양상」, 『역사와 담론』 99, 호서사학회, 2021.

김문자, 「정보통신과 임진왜란」, 『한일관계사연구』 22, 한일관계사학회, 2005.

김영주, 「조보에 대한 몇 가지 쟁점」, 『한국언론정보학보』 43, 한국언론정보학회, 2008.

_____, 「조선후기 조보 연구(차배근, 2022)에 대한 서평: 필사조보 창·폐간 시기, 조보명칭과 출현건수 등을 중심으로」,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8(3),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2024.

박준호, 「조선후기 평민 여성의 한글 소지 글쓰기」, 『국학연구』 36, 한국국학진흥원, 2018.

백두현, 「조선후기 여성의 문자생활 연구: 한글편지와 한글 고문서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42,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변원섭, 「임진왜란 시기 일기 자료에 나타난 사대부의 전쟁 체험과 평화 인식」, 강원대 박사학위논문, 2022.

이규철, 「임진전쟁 시기 민간의 정보수집과 전달양상」, 『국학연구』 53, 한국국학진흥원, 2024.

정재훈, 「사대부가 주도하는 사회로서의 조선 시대사」, 『역사비평』 135, 역사비평사, 2021.

3.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https://stdict.korean.go.kr>

네이버지도, <https://map.naver.com>

한국고전번역원, <https://life.itkc.or.kr>

한국고전종합DB, <https://sillok.history.go.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Abstract

Communicative Ability of the Literati during the Imjin War

An Inquiry through Oh Hee-mun's Wartime Diary, *Swaemirok*

Byun, Won-Seob |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e Imjin War brought extreme social disruption to Joseon, and the breakdow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s posed a serious threat to the survival of individuals and families. Drawing on Oh Hee-mun's *Swaemirok*, this study examines how the literati maintained social and familial communication during wartime and conceptualizes their adaptive practices as "communicative ability."

The analysis divides Oh Hee-mun's wartime experience according to his places of residence—Jangsu, Hongju, Imcheon, and Pyeonggang—and investigates two forms of communication: social communication through the royal gazette (Jobo) and official documents (Gwanmun), and familial communication through personal letters. During the Jangsu and Pyeonggang periods, when Oh maintained close contact with local government offices, official documents served as his primary source of information. As wartime conditions gradually stabilized, however, personal letters became increasingly important for maintaining family ties. In Pyeonggang, where he lived near his eldest son's workplace, access to official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ith family members became relatively stable. These shifts demonstrate how the literati adapted their communication strategies to changing circumstances.

By examining both official and private networks, this study highlights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everyday survival during the Imjin War. It further demonstrates how information circulated and family ties were sustained through wartime correspondence.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literati diaries will help determine whether Oh Hee-mun's "communicative ability" was individual or characteristic of the literati more broadly.

Keywords communicative ability, literati, Imjin War, information networks, social communication, familial communication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